



증례 I - 1

Functionally generated path를 이용한 보철물의 제작

송현곤*, 김만용 가천의과대학 부속 길병원 치과 보철과

1993년 Meyer에 의해 처음 소개되어 Pankey-Mann에 의해 발전된 교합면 수복의 한 방법이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악관절이 가장 적절한 교합기란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FGP 과정을 주의깊게 따른다면 Crown 시적 과정에서 최소한의 조정이 가능하다. Functional wax를 사용하여 구강내에서 모든 하악의 border movement를 기록하고 여기에 stone을 부어 functional core를 제작한다. 그 뒤 functional core에 맞춰 교합면을 wax up 하게 된다. 단 이 기술은 대합치가 적절한 교합일 때만 사용가능하다. 교합기는 단순 hinge articulator가 사용될 수 있어 twin stage occluder, verticulator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Functional wax에는 Bosworth사의 synthetic tacky wax가 변형이 적고 구강내 온도에서 성형성이

우수하여 가장 적합하며 그외에도 Ash bite registratopm wax, Hi-Fi wax 등이 사용될 수 있다. Functional path 과정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다양한 곳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recording table은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구강내에서 잘 맞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Functional wax는 soft하여 작업시 변형될 수 있다. Functional path를 채득한 즉시 stone을 부어야 wax의 수축에 따른 오차를 방지할 수 있고 Functional core는 단 하나이므로 작업중 마모나 손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의깊게 행한다면 FGP의 장점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연자는 Functionally generated path를 이용하여 치료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